

 인천광역시		보 도 자 료		시민이 행복 한 세계 초일류 도시 인천
배포일자		2023년 7월 12일(수) 총 3매		
담당 부서	농축산과	담 당 자	• 동물관리팀장 윤가리 ☎440-4398 • 담당자 윤일채 ☎440-4373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백신 항체 검사 강화해 구제역 청정지역 지킨다
 - 구제역 긴급 백신접종 이후 우제류 농가한 항체 검사 실시 -
 - 농장별 검사 두수 확대, 미흡 농가 집중관리 등 예방 활동에 총력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오는 하반기부터 구제역 백신 항체 검사를 강화하고 항체 양성률 기준* 미만인 농가를 집중관리 한다고 밝혔다.

* 구제역 백신항체 양성률 기준 - 소 80%, 돼지 30%(번식돈 60%), 염소 60%

지난 5월 10일, 충북 청주 한우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시는 관내 우제류(소, 돼지, 염소 등) 농가 중 긴급 백신접종 대상(농가 452개소, 32,385두)에 대해 100% 백신접종을 완료했고, 주요 축산시설에 대한 소독을 강화하는 등 강도 높은 방역 조치를 추진했다. 참고로 인천광역시에서는 2015년 3월 돼지농가(2개소)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9년째 비발생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시는 구제역 긴급 백신접종 명령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백신 항체 양성률이 미흡한 농가의 차단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관내 우제류 농가에 대한 백신 항체 검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오는 7월 말까지 관내 우제류 도축장으로 출하되는 소를 농장별로 1마리씩, 총 100마리 이상 검사해 구제역 백신 항체 형성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항체가 형성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해당 개체를 출하한 농장을 방문해 추가 확인검사(16마리)를 진행한다.

또한 관내 축산농가 중 자가접종 농장은 농장별로 16마리씩을 검사해 항체 양성률 기준 미만일 경우 최종 미흡 농가로 판정해 집중관리 한다는 방침이다.

백신접종 미흡 농장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미흡 원인 조사를 위해 현장을 방문해 백신접종 방법, 보관상태 등을 점검하고 올바른 백신접종 방법 및 소독요령 등 농가 교육을 병행하게 된다. 또한 백신 재접종 후 4주 간격으로 추가 검사를 실시해 항체 양성률이 정상화될 때까지 지속 관리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5월까지 관내 우제류 1,162두에 대한 항체 검사를 진행했으며, 이 중 1,121두에서 항체가 형성(항체 양성률 96.5%)된 것을 확인했다. 하반기에는 강화된 구제역 혈청 예찰 계획에 따라 당초 목표보다 검사물량을 417두 이상 확대할 예정이다. 이는 취약농가를 조기에 발견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김정희 시 농축산과장은 “축산농가와 관련 종사자는 방역에 빈틈이 생기면 언제든지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백신접종을 비롯한 농장 내·외부 소독, 출입 차량·사람에 대한 차단방역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구제역 백신 접종요령 등 가축전염병 방역 관리요령은 농림축산식품부 (www.mafra.go.kr) 가축질병특별페이지(홍보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고사진〉

	
<p>구제역 백신 접종</p>	<p>백신접종요령(출처:농식품부 홈페이지)</p>
	
<p>우제류 농가 구제역 방역 점검</p>	